

농어촌公 장흥지사, 선임대 후매도 사업 2차 신청자 공모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4.18 15:30

자금 부족 청년 농업인 지원 제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오는 28일부터 5월13일까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18일 장흥지사에 따르면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농지 구입을 희망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사가 먼저 농지를 매입한 후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청년 창업농 및 2030세대)이며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가능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 정리 및 밭 기반 정비가 완료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 농지 소유자 역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장흥지사 관계자는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및 정착을 돕겠다"고 했다.



이창식 기자